

4~5» 데이터 뉴스 – 학교주변 범죄현황	7» 큰 배움터 ‘대학’, 인생의 서재	201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
		개강일 : 2016.03.02(수) 일정 : 2016.03. 02(수) 10:30 ~ 2016.03.08(화) 18:00 수강신청학점 철회 : 2016.03.16(수) 10:30 ~ 2016.03.22(화) 18:00



‘새내기’의 힘찬 발걸음
나도 이제 대학생

2016학년도 신입생들이 입학식이 열리는 평화의 전당으로 향하고 있다. 입학식은 단과대별 자체행사를 거쳐 26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가량 진행됐다. 입학식에서는 환영사·교양과정 소개·축하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사진=최병헌 기자)

‘21세기 대학혁신위원회’ 3월 공식 출범

21세기 대학혁신 위원회
권윤지 기자 happitice2@khu.ac.kr

‘미래대학리포트’를 통해 수렴된 구성원의 요구사항을 실현하고, 대학의 효율적인 행·재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조직된 ‘21세기 대학혁신위원회’(혁신위)가 3월 공식 출범한다. 2월 19일 평화복지대학원에서 열린 2016학년도 1학기 합동교무위원 연합회에서 ‘혁신위’에 대해 브리핑한 유정완 서울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학장은 “처음엔 경희 미래대학리포트 2단계 사업이라고 부르다가 대학의 문화, 인식, 구조 등을 바뀌어나가는 차원에서 ‘혁신’이라는 용어를 썼다”며 “개교 70주년인 2019년에 아

미래대학리포트 후속 사업에서 확대·구성
교육·실천 위원회, 학술·진흥위원회 축
위원회에 5명의 학생위원 배정, 참여가능
완성된 사업 바로 집행하는 실행위원회도
‘독립연구’, ‘사회진출’, ‘평가지표’ 주요과제로

시아를 넘어 세계 정상권 대학으로 진입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내년 3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혁신위는 총장 산하에 ‘교육·실천혁신위원회’, ‘학술·진흥위원회’ 등의 양 위원회와 ‘실행위원회’, ‘기획위원회’, ‘행·재정혁신지원

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무총장은 총장을 보좌해 전반적인 실무를 총괄한다. 현재 서울캠퍼스 후마 학장이기도 한 유정완(영어학부) 교수가 사무총장을 맡았다. 교육·실천혁신위원회에서 비중 있게 추진하는 일은 ‘종합적 사회진출 프로그램 창출’과 ‘독립연구’다. ‘종합적 사회진출 프로그램’은

졸업과 동시에 사회로 진출했을 때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획력과 현장 경험을 기르게 하는 ‘실전적 교육 프로그램’이다. 우기동 교육·실천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존의 취업 방식을 넘어서서 NGO, NPO, 국제기구 종사, 귀농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삶의 모습을 알려주고, 실제로 그 삶을 구상해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독립연구나 사회봉사 과목처럼 학점과 연관된 형태, 그리고 학점과 관계없이 지구사회 봉사단에서 교수·학생 간의 펠로우십 형태로 진행되는 등 크게 두 가지 모델을 만드는 중”이라고 말했다.

▶3면으로 이어짐

Newsmaker

체육대학 내부 변화의 목소리
김태우(체육학 2015)



“행사 예·결산안 공개 60년 체대 역사에서 큰 전환점”

정혜빈 기자 hb0204@khu.ac.kr

#. 지난 2월 14일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 체육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비의 높은 가격에 의문을 제기하는 익명의 글이 올라왔다. 이후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과 시간표 공유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게시판과 같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체육대학 오티비와 관련해 부담함을 고발하는 익명의 글이 줄을 이으며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용기 있게 체육대학 내부에서부터 ‘변화의 목소리’를 주장하고 나선 학생이 있다. 우리 신문은 최근 온라인에서 주목 받고 있는 김태우(체육학 2015) 군을 만났다.

김 군은 15일부터 개인 메신저로 체육대학 재학생들이 생각하는 체육대학의 개선되어야 할 점을 모아 지난 23일 체육대학 학생회 신영광(체육학 2010) 회장과 면담을 가진 바 있다. 체육대학에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실명을 밝히며 ‘내부 변화’를 주장한 김 군은 온라인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김 군은 “실명을 밝히고 의견을 개진하면 전달하는 내용의 진실성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줄 것이라 생각해서 체육대학 재학생 대표자를 자청했다”고 말했다.

김 군이 가장 먼저 주장하는 의문점은 ‘단체복’에 관련한 사항이다. 김 군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오티)비용의 가장 핵심적인 논란은 15만원의 단체복 비용”이라며 단체복·기념품 등 여러 품목들의 비교견적서 공개를 요구했다. 논란이 되는 단체복은 직전 업체 측과의 ‘거래방식’ 문제로 전량 회

수된 상황이다. 체육대학 학생회 측은 거래업체의 정확한 정보를 몰라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업체 측 사람의 말만 믿고 정확한 정보도 묻지 않은 채 구두로 계약한 신 회장의 행동은 문제가 될만하다”라고 지적했다.

“학과 행사할 때마다 학생회비 결산내용을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회칙 반드시 신설해야”

김 군은 이와 함께 지난 3년간 오티를 비롯한 체육대학 학생회가 주관하는 행사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요구했다. 김 군의 이 같은 요구에 체육대학 학생회 측은 “지난 3년간 행사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오티를 포함한 행사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김 군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지 않았던 장부 공개를 이제부터라도 하겠다는 것은 체육대학 역사상 큰 전환점이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아직 구두 약속만 있었고 명시화,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면서 여전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김 군은 “행사 시 마다 예·결산 내역을 표·통장 스캔 등을 통해 모든 학생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회칙을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김 군의 용기 있는 행동이 체육대학 변화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대도시의 삶과 인문적 가치

후마 - 대학주보 공동기획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 ⑨

임옥희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인터넷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같은가라는 질문에 “인터넷은 사라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 말은 장차 인터넷이 완전히 일상화되어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이라는 뜻이었다. 인터넷처럼 대도시 또한 이제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자연스럽고 ‘무의식적인’ 환경이 되었다. 대도시 이외의 삶을 상

상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하지만 대都市는 자연발생인 것이라기보다 삶을 개선하려는 사람



게오르그 짐멜은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의 전형적인 심리상태를 신경과민으로 분석한다

들의 욕망에 따라 개발된 것이었다. 비대한 도시의 출현은 산업자본주의 이후 산업연구의 도시집중과 무관하지 않았다.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제주도 출신인 서연이 그처럼 편입하고 싶었던 강남은 한때 진흙이 신발창에 찍혀 달라붙던 논밭이었다. 일자리를 찾아 몰려든 사람들이 모여 대도시 서울은 변두리 농촌지역을 계속 삼켜나가면서 비대해졌다. 일단 만들어진 대도시 그곳에 살았던 원주민들의 회고에 따르면 기억을 맡김지 지우고 유혹적인 소비공간이 된다. 박태원의 <천변풍경>

>이 보여주다시피, 1930년대 청계천에는 뽕래하던 여인들이 두드러진 방망이 소리와 한숨소리가 흘러갔다. 1970년대 청계천변의 벌집같은 공장에서는 청계피복노동자들이 돌리던 고달픈 미싱소리가 밤낮으로 흘러나왔다. 2005년 도심의 휴식공간으로 되돌아온 지금의 청계천변에서는 옛사람들의 소멸과 더불어 과거의 기억을 찾아보기 힘들다. 대도시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하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사령

면
《편집장》 백승철(정치외교학 2011)

명

《편집장》	《정기자》
이시은 (컴퓨터공학 2011)	유정아 (국어국문학 2014)
《뉴스팀장》	김유림 (아동가족학 2014)
김도엽 (정치외교학 2012)	기호웅 (의류디자인학 2012)
이성민 (프랑스어학 2015)	김수진 (한국어학 2014)
《영상팀장》	양윤혁 (한국어학 2015)
이정민 (스페인어학 2014)	
《파트장》	
김규래 (경영학 2012)	최병헌 (경영학 2015)
정혜빈 (원예생명공학 2015)	강규연 (의류디자인학 2014)

시선

사설

‘혁신’은 구호가 아닌
구성원의 ‘삶’이다

오는 3월에 ‘21세기 대학혁신위원회(혁신위)’가 출범한다. 내년 3월까지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이 조직은 ‘총장과의 대화’와 ‘경희 미래리포트’ 등을 통해 수렴된 구성원의 요구사항을 실현하고 대학의 효율적 발전을 위해 구상되었다는 전언이다. 지난 합동교무위원 연찬회에서 언급된 바, ‘대학의 문화, 인식, 구조 등을 바꿔’ 나가겠다는 이 조직의 지향가치는 명칭에도 포함돼있듯 ‘혁신’이란 단어로 대변되고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세상이지만, 사실 혁신이란 그리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단지 혁신의 최종성과와 열매만이 참대해보일 뿐, 정작 그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지난하리만큼 세밀하고 정치(精緻)해야 하며 그 와중에도 지속적 인 추진력과 향상성을 지녀야만 한다. ‘2019년까지 세계 정상권 대학으로 진입’한다는 원대한 포부를 담은 이 혁신위의 출범을 목도하며 몇 가지 걱정이 앞서는 것은 ‘혁신’이 지나는 위와 같은 성격 때문이다.

우선, 우리에게는 다함께 공유하고 있는 ‘혁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바로 지난 2014년에 발표되었던 ‘재정 현황 및 행·재정 개선 방안(행·재정 개선 방안)’이 그것이다. 당시 우리 대학은 ‘조직의 슬림화’를 표방하며 그간 이어져온 행정·재정적 문제점들을 불식시키고자 행·재정 개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8개월여가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는, 목적과 계획이 모두 명확해 보였던 처음의 모습과는 달리 어느덧 행·재정 개선 방안은 추진력을 잃고 그 모습을 시나브로 감추고 말았다. 지속적인 추진력과 향상성이 휘발된 탓이다.

그리고 이제 기존 행·재정 개선 방안의 자리를 혁신위가 대체한 형국이 되었다. 이전과 유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번 혁신위에 대해 구성원이 이전의 사례와 변별되는 지속적인 추진력과 향상성을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더불어, 세밀하고 정치(精緻)해야 하는 ‘혁신의 과정’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 혁신이 강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대학의 주요 구성원인 교수, 학생, 직원사회의 적극적인 공감이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혁신의 과정이 세심하지 못할 경우 자칫 이들 구성원을 ‘혁신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그릇된 관점이 틈탈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그 ‘혁신’에 대한 구성원의 동참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만다. 무릇, 구성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혁신은 그 구성원의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가는 것이다. 각 구성원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가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구성원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의 길이다. 하지만 현재 드러나 보이는 혁신위의 청사진 상에는 거시적인 그림들만이 확인될 뿐, 정작 구성원의 삶과 밀접한 디테일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혁신’이 삶이 아닌 구호가 될 때, 구성원은 피로감을 느끼고 그 혁신에 대해 공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경희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출범한 혁신위가, ‘그 미래로 가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고민해가길 바란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의 자발적 동참과 성원 속에 성공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이번 한 해를 보내길 기원한다.

사회교육원생 동문 지위 부여
둘러싼 논란

미디어 여론동향 2016. 02. 15 ~ 02. 26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국제캠퍼스(국제캠) 제2차 등록금책정위원회(등책위)가 지난 11일 국제캠 중앙도서관 광세홀에서 열렸다. 이 날 등책위에서는 등록금 논의 이외에도 ‘단과대 학별 교비 측정’, ‘SPACE21 사업 진행’ 등 각종 교내 쟁점사항들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뚜렷한 답을 얻어내지는 못했다. 미래정책원 기획예산팀 박재성 계장은 “단과대학 교비지원은 단과대학별 규모와 등록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율예산으로 편성해 자율 예산위원회에서 산식을 통해 책정한다”고 말했다. (등록금 외에 여러 현안 논의했지만 뚜렷한 답은 못 얻어/대학주보 온라인, 2016.2.17) 다음 제3차 등책위는 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이주의 주제 - 수강신청 이후 과목 폐지 일방적 공지

행정실은 ‘학생’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

조민호 기자

luve5678@khu.ac.kr



재학생에게 ‘졸업 기준 아느냐’고 물어보자. 재학생에게 물어본다면 대부분이 소속 대학 행정실에 문의한다고 답할 것이다. 왜 행정실에 문의할까? 대학 행정실은 학사와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고 전달하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학교기관이기 때문이다. ‘행정실’은 학생을 위해 수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대학 과목 교육과정을 개정·인준·폐기하고, 관련 문의사항 답변까지 맡는 등 말 그대로 학생의 편의를 위한 폭넓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호 텔관광대학(호관대)에서는 수강 신청을 이미 완료한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공 필수 과목의 폐지를 공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폐지 공지가 늦은 점이나 대체과목에 대한 설명도 부신했다. 기자는 이번 사태를 보며 행정실 업무가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됐다.

호관대 강좌폐지 문제와 같은 일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2학기 희망과목 담기 기간 중 경영대학의 갑작스런 전공과목 시간 변경 문제가 있었다. 2012년에는 자율전공학과 행정실이 타 단과대 학부, 학년 전용 강의를 자율전공학과 학생이 수강할 수 없었던 문제를 방지하다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학생의 불편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행정실의 태도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호관대 행정실은 ‘정식 행정 절차를 거쳤다’고 답변한다. 해당 과목을 폐지·인준하기 위해 학사지원과에 자문을 구하고, 교수들의 동의를 얻고, 대체 과목의 신설까지 확정해야 공지를 할 수 있으니 행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행정실이 가장 먼저 유념해야 할 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아닌 자신들의 존재의미인 ‘학생들’ 그 자체다. 이번 사태의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학생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시간표를 다시 짜는 것이 아니라, 행정실이 학생의 현 상황에 맞춰 빠르고 정확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 행정실은 학생의 편의보다 행정적인 절차를 앞세우고 있어 목적이 전치된 모습이다.

늦은 학사 공지만이 문제는 아니다. 행정실이 품은 여러 문제들 중에서 하나가 불거졌을 뿐이다. 이번에 취재한 많은 일반 학생은 비단 수강신청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더라도 “행정실의 답변이 좀 더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실은 당연히 해당 대학 학사에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고, 질문 받은 사항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학교의 운영 사항에 관련해서 학생들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행정실이 모른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물어 보아야 하는가?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라면, 얼마든지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존재한다. 학생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주도면밀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을 위한’ 최대한의 보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나라고 생각한다. 입학방법도 다르고, 수료 학기도 다른데 졸업하면 같게 된다니요”라며 이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25개의 ‘좋아요’와 24개의 댓글로 반응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힘 빼지는 소리 하지 말라”는 류의 입장과 “학부생과 교육원생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므로 어딜가서 소속을 밝힐 때 사회교육원생임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칭이라고 생각된다”는 류의 입장으로 나뉘었다.

학부 구조조정에 나선 경희대학교가 사회계열 학부를 대거 통합해 3년 내에 ‘미원대학’(가칭)을 설립하는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단독]경희대, ‘미원대학’ 신설 추진…3년내 사회계열 학과 대통합/머니투데이, 2016.2.17) 지난 16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경희대 미원대학 설립 계획안’에 따르면, 국제캠의 국제대학, 자율전공학부가 서울캠으로 이전해 타 학부와 통합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된다. 한편, 경희대 관계자는 “아직은 아이디어일 뿐이며 본부가 강제로 추진하는 계획이 아니다”라며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세시봉



김도엽 <뉴스팀장>

최근 국회에서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다. 테러방지법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통 부재로 무제한 토론이 열리게 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24일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는 시간강사 45명에게 급작스러운 해촉 통보 메일을 보냈다. 2달이 지난 묵은 이야기지만 학교의 새 구성원들에게 우리학교의 소통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어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후마 측이 제시한 해촉의 배경은 ‘해당 교과목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후마 행정실은 해촉의 배경에 해촉할 수 밖에 없었던 힘든 상황이 있었음을 밝혔다.

우리 학교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은 작년 2학기 기준 49.3%로 사립대학 전체 평균 63.9%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매년 실시하는 대학평가의 항목 중 하나기 때문이다. 작년에 새롭게 신설된 이 항목에서 우리 학교는 40위권 밖의 순위를 기록했고 따라서 본부의 의도도 이해 못할 것은 아니다.

규정에 있더라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

세심한 배려·소통은 불가능한 것인가

지금까지 기사를 비롯해 우리신문 역시 전임교원 확보율과 강의담당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해왔다. 이번 후마의 결정은 학교 차원에서 보면 이익이다. 하지만 시간강사 45명을 해촉하며 학교가 얻은 것은 지표의 약 4% 상승이다. 시간강사의 비중이 낮아지며 상대적으로 전임교원 비중이 약 4% 오른 것이다. 물론 이번 해촉은 학교 규정과 관련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학교 시간강사 규정은 ‘시간강사는 강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통 없는 일방적 해결은 각 건물마다 걸린 후마 채호정 시간강사의 대자보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

소통의 부재는 우리학교 프라임사업과도 연관이 있다. 기자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 열린 몇 차례의 프라임사업 소통위원회에 참석했다. 대학 본부는 프라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달라고 항상 강조했다. 물론 사업이 중대하고 우리학교의 아이디어를 타 학교에 새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학생들은 자신의 단과대가 조정의 대상인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다.

SNS에서 화제였던 ‘유재석 소통의 법칙 10가지’ 중 한가지 구절이 생각난다.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라는 구절이다. 이번 채호정 시간강사가 대자보에 쓴 것처럼 ‘교과 운영 과정에서 강좌가 폐지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합당한 절차와 납득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함을 느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학교와 시간강사 간 소통이 없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학교안의 모든 문제를 구성원과 소통할 순 없지만 사안에 논란의 여지가 있고 많은 구성원들이 관련된 문제에는 치열한 소통이 필요하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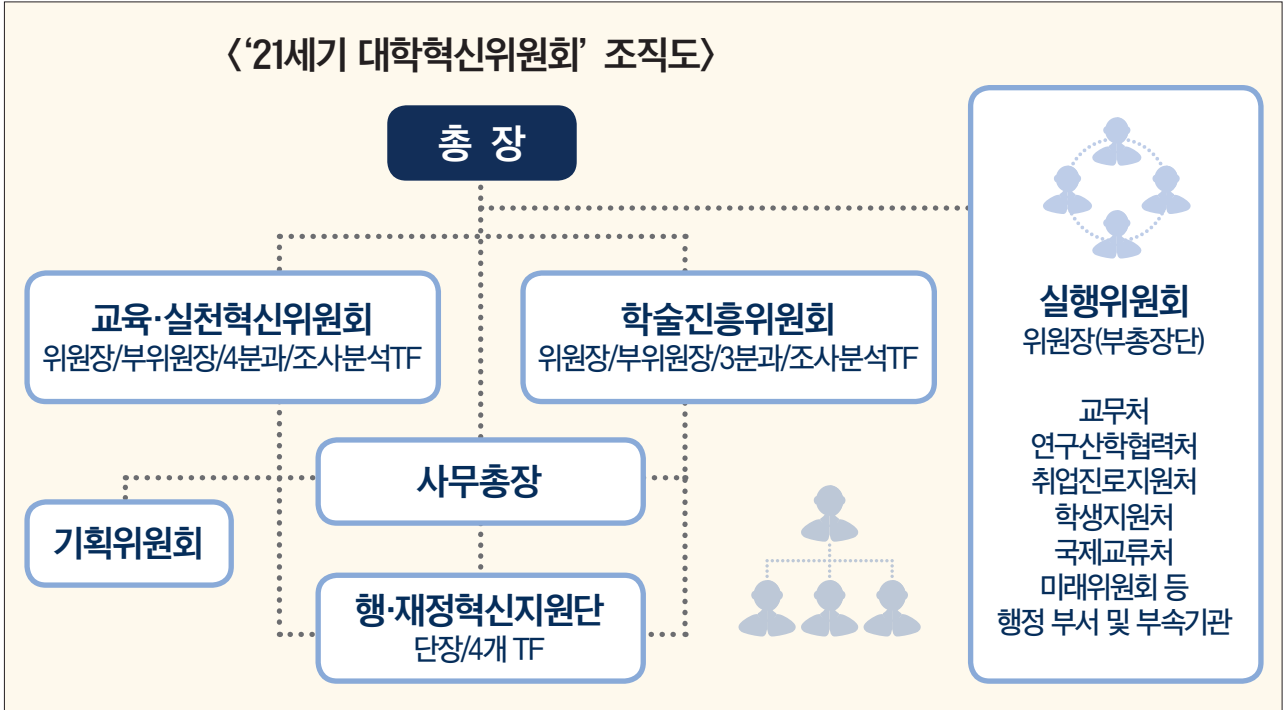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해경 | 편집장 이서은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33-4 | 주소정경 02-441-7317(미래7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3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천동)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1면에서 이어짐

‘독립연구’는 원하는 교육과정을 학생이 직접 설계해 능동적, 창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번 학기에 새롭게 신설된 교과목이다. 학생들은 기존의 전공·교양 강좌가 포괄하지 못하는 관심 주제를 선정하여 스스로 강좌(커리큘럼, 주차별 학습·활동 계획 등)를 설계하고, 교수의 지도 아래 독자적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된다.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3월 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학술·진흥위원회는 ‘세계적인 경희 학풍 조성’과 ‘세계대학평가지표(GEI) 개발’을 중요 과제로 설정해놓았다. 이문재 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학풍 조성의 방식에 대해 “5대 연계협력 클러스터를 바탕으로 구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5대 연계협력 클러스터란 융·복합 학문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미래과학, 인류문명, 문화예술, 사회체육 등 5개 계열을 ‘미래대학이 학문적으로 선도해야 하는 5대 분야’로 규정, 구성하여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GEI는 ‘Global Eminence Index’의 약자로 본부 측이 개발하는 새로운 ‘세계대학평가 지표’를 말한다. “정량적 연구실적과 평판도 중심의 대학평가를 극복하고, 대학의 가치(창학이념), 공익성, 학생 중심의 교육체계 등을 중심으로 제작하게 된다”고 말한 이 위원장은 “국내외 대학,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 기업 등과 연계해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EI는 교육·실천혁신위원회에 소속한 대외협력세계참여 분과도 함께

참여한다. 기획위원회는 사무총장과 협력해 양대 위원회에 전반적인 기획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기획 역할을 수행한다. 유 사무총장은 “앞으로 하나의 소통 창구를 만들어서 우리학교 발전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들을 생각인데, 양대 위원회가 각자 집중하는 사업과 별개로 중요한 아이디어들이 있을 경우에도 기획위원회에서 기획안을 만들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재정혁신지원단은 명칭 그대로 양대 위원회와 사무총장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지난 19일 평화복지대학원에서 합동교무위원 연찬회가 열렸다.

마지막으로 실행위원회는 기존까지 교내에 존재해오던 위원회들과 가장 구별되는 조직이다. 기존의 각종 위원회들은 20명 정도의 교원이 모여 일정 기간 진행한 연구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종료되는 것이 관례였던 반면, ‘실행위원회’는 중요 사안마다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다. 유 사무총장은 “보고서만 내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실행한 뒤에 종합적인 보고서를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의 양대 위원회에는 각각 5명의 학생 위원이 배정돼 학생 참여도 가능한 형태다. 유 사무총장은 “(학생 대토론회를 주최하는) 교육·실천 위원회뿐만 아니라 교수들이 생각하는 연구와 학생들이 생각하는 연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술·진흥위원회에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참여 방법은 학생 대표 기구들의 추천 및 다양한 방식을 이용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평화복지대학원에서 합동교무위원 연찬회가 열렸다.

‘정원 감축·융복합학 신설’ 가닥 잡혀

프라이م사업 어디까지 왔나

최재원 기자 jankin1997@khu.ac.kr

지난해 11월 이후 여론을 뜨겁게 달군 프라이م사업의 사업 계획서 마감이 3월 말로 예정된 상태다. 우리 신문은 방학 중 지속적으로 진행돼왔던 프라이م사업 관련 이슈를 정리해봤다.

프라이م사업이 집중적으로 조명받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년 12월 15일 온라인상에 ‘학문단위 재조명 및 개편 가이드라인(안)’(가이드라인)이 공개돼, 그 내용의 구체성과 근거에 대해 구성원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이어 가이드라인작성 배경을 두고 구성원과의 소통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생회(총학)는 12월 24일과 26일 두 번에 걸쳐 프라이م사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해 “가이드라인이 본·분교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한 구성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후 12월 29일 교육부가 프라이م사업 최종 선정을 1개월 연기하면서 학교는 잠시의 여유를 갖게 됐다. 교육부는 “학내 구성원 간 충분한 의사결정을 장려하고자 2016년 3월 말에서 4월 말로 향후 추진일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해가 바뀐 2016년 1월 11일에 열린 대학 본부와와의 면담에서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은 프라이م사업 논의의 재검토와 학생 의견 개진 보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학본부는 ‘원점으로부터의 재논의’와 ‘교수, 교직원, 학생대표로 구성된 소통위원회 운영’을 약속했다.

국제캠 총학 또한 대학본부와 면담을 가졌다. 국제캠 총학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문 제기에도 대학본부는 “중복학과 문제나 본·분교 문제를 심화하는 방향의 사업 진행은 없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총학과 대학본부 간 핫라인을 구축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것을 합의했다.

1월 19일에는 ‘프라이م사업 준비위원회 워크숍’이 개최돼 사업의 추진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총장과 부총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학본부 측은 “우리학교 장기발전 계획과 프라이م사업의 정책 방향이 잘 맞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사업 참여 계기를 언급했다. 하지만 서울캠 총학은 “학과융합으로 인한 기초학문 경시를 초래할 것”이라며

프라이م사업의 어떤 부분이 우리대학의 가치와 부합하는 건지 의구심을 표했다. 한편, 국제캠 총학은 “양 캠퍼스 총학부터 먼저 프라이م사업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하나의 경희’로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1월 28일과 2월 3일, 2월 1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프라이م사업 소통위원회’(소통위)가 개최됐다. 1, 2차 소통위에서는 ‘신설될 융·복합학과 계획안’에 대해, 제3차 소통위에서는 ‘각 학과별 인원 감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앞선 두 번의 소통위에서는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캠 총학은 이번이 학교 측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제2차 소통위 당시 서울캠 정주희(사학 2012) 학생회장은 자료 공개요청에 응하지 않는 학교 측에 “구체적인 정원변동 계획안은 도대체 언제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3차 소통위, 인원 감축 논의 진행

3월 말 사업계획서 제출 예정

이에 대해 한균태 부총장은 “자료를 내부 구성원에게 알리는 것은 괜찮다”고 했으나 확정안이 아닌 자료가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을 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또한 융·복합학과 관련 논의에서 배포된 종합자료에 대해 정 회장은 “학교 측에서 계획을 숨기고 있지 않나”며 본부에 대한 의구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미래정책원(미정원) 신상협 원장은 “종합자료는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내부 논의의 결과”라며 “구체적인 안이 있다면 제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제3차 소통위에서는 프라이م사업 최종선정을 위한 인원 감축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양 캠퍼스별로 총 정원의 15%를 줄여 이를 신설학과에 활용하는 방향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논의대로라면 서울캠에서 276명이, 국제캠에서는 266명의 정원이 축소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제캠 측은 서울캠의 정원 감축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꼬집으며 국제캠의 상대적인 불이익을 언급했다. 미정원 측은 “3월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며 구성원들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오는 3월 말 프라이م 사업계획서 접수를 마감한다. 이후 총 두 차례의 정량평가와 마지막 최종심의를 거쳐 총 10개교 내외를 최종 선발하게 된다.

2016년 1학기 2차 국가 장학금 신청 안내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원이 한층 더 늘어난 국가장학금과 함께 하세요.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 정책은 등록금(14조 원)의 절반(7조 원)을 정부와 대학이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신청기간** 2016. 2. 25(목) 9시 ~ 3.10(목) 18시
※신청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지막 날은 18시까지)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16. 2. 25(목) 9시 ~ 3.15(화) 18시
- **신청대상** 신·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은 1회에 한하여 2차 신청 가능(단, 구제 신청서 제출시 지원)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www.kosaf.go.kr 접속 후 신청, 관련 문의 : 1599-2000)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 학점 미적용 재학생, 복학생 : 직전 학기 평점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단, C학점 경고제 대상자 및 장애인인 70점 이상)
☒ **신청할 때 반드시 가구원 정보제공에 동의해주세요!**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대상 : 미혼(부모 모두), 기혼(배우자)
 -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할 경우, 직접방문, 이미지 업로드, 팩스 등을 통한 서면동의를 가능합니다.
 - 2015년에 가구원이 이미 동의한 경우, 변동사항이 없으면 동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요즘 잘 나가는 저 선배

토대체 비결이 뭐야?

삼성의 소식을 가장 먼저 받는
삼성그룹 소셜 미디어!

삼성그룹 소셜미디어

삼성블로그 blog.samsung.com	삼성트위터 www.twitter.com/samsung	삼성페이스북 www.facebook.com/samsung	삼성 카카오프러스친구 카카오프러스친구>검색>삼성
----------------------------------	---	---	--------------------------------------

학교 주변 자주 발생하는 치안 4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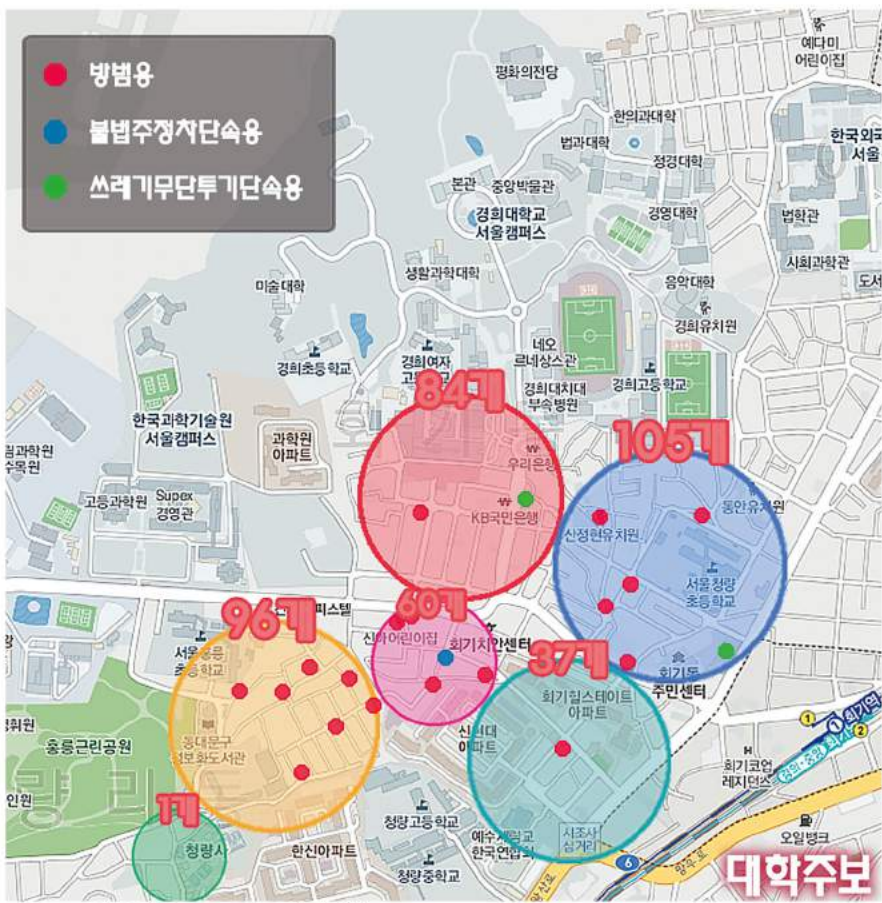
데이터로 본 경희

#. 대학주보는 2016년 1학기에 '데이터로 본 경희' 연재를 시작합니다. 데이터 저널리즘은 CAR(Computer Asisted Reporting: 컴퓨터 활용 취재보도)을 통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현재 미디어계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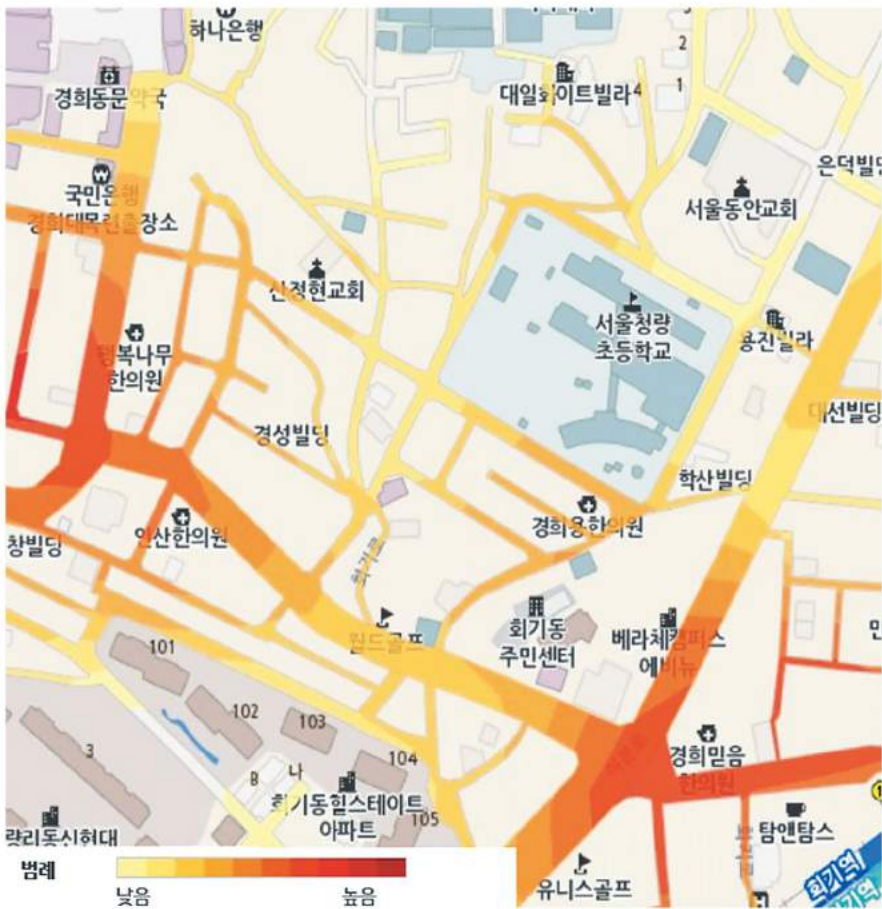
대학주보는 이를 도입하여 교내·외의 데이터를 수집, 정리, 분석, 시각화해 깊이있는 기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연재의 첫 시작은 양 캠퍼스의 과거 치안범죄 현황과 CCTV, 보안등 설치현황을 조명한 기사입니다. 앞으로의 연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재 순서

1. 양 캠퍼스 주변지역 치안범죄 현황
2.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원 숫자와 강의 개수 변화 추이
3. 프라임 사업 학과별 정원 이동 및 신설학과 현황
4. 양 캠퍼스 대학생 주거문제 현황
5. 양 캠퍼스 도서관 관련 데이터 현황



• CCTV 설치 현황 - O 보안등 설치 현황



서울캠 치안 범죄 발생 지역



학교 주변 치안범죄 현황

김규래 기자 rlarbfo41@khu.ac.kr

국민안전처에서 제공한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우리학교 주변을 확인한 결과, 서울캠은 성폭력, 국제캠은 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안전지도란 과거 2-3년동안 모인 신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표시해주는 지도다. 이 지도는 대표적 치안범죄를 성폭력, 폭력, 절도, 강도로 규정하며 이를 통해 과거 관련 사건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치안범죄발생 빈도가 높았다. 서울캠은 버거킹 삼거리 상권발달 지역과 회기역 앞 사거리의 범죄 발생빈도가 가장 높았다. 국제캠은 서천동 방향으로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탓에 영통동 방향으로 범죄발생빈도가 쏠려있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영통역 주변과 영통 중심상가 근방에서 상대적으로 범죄 빈도가 높았다.

서울캠 주변에서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치안범죄는 성폭력이다. 회기역 사거리와 원룸이 밀집한 골목, 청량초 주변 등이 주요 사건 발생 지역이었다. 전체적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현시점에서 학생 1인 가구가 상당수인 대학가의 생활안전에 주의가 요망된다. 반면 국제캠은 서울캠에 비해 성폭력 관련 범죄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건 발생 빈도 높음'에 해당하는 붉은 표시는 없었고, 신고

가 접수되지 않은 지역도 있었다.

국제캠은 성폭력 범죄가 적었지만 폭력범죄는 가장 많았다. 서울캠은 폭력범죄가 성폭력 다음으로 많이 발생해 양 캠퍼스를 합치면 폭력범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양 캠퍼스 다 특정 지역에 폭력범죄 발생기록이 몰려있고 주변으로 미미하게 퍼져있는 모양을 띄었는데, 상권발달지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공통점이 있다.

서울캠은 버거킹 삼거리 발달상권 근처에서 가장 많았고, 국제캠은 영통 중심상가에서 가장 많았다. 음주로 인한 폭력사건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상권발달지역에 범죄 기록이 몰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대문구 경찰서 생활안전계 측은 "타 범죄에 비해 폭력 범죄는 지나친 음주로 인해 시비가 붙거나 감정이 격해져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절도는 범죄의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고 혼잡한 지하철역 주변에서 주로 발생했다. 서울캠은 주로 학교 정문부터 회기역까지 가는 큰길에 절도신고기록이 분포돼 있었고, 특히 회기역 앞 사거리에서 가장 빈도가 높았다. 국제캠은 정문 앞과 영통 중심상가, 영통역 근방에 분포했는데, 특히 영통역 부근에서 빈도가 매우 높았다.

강도는 대학가라는 지역 특성상 양 캠퍼스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캠 주변은 회기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 쪽에서 일부 발생했고, 국제캠 주변에서는 서천사거리에서 일부 발생했을 뿐이었다.

한국어·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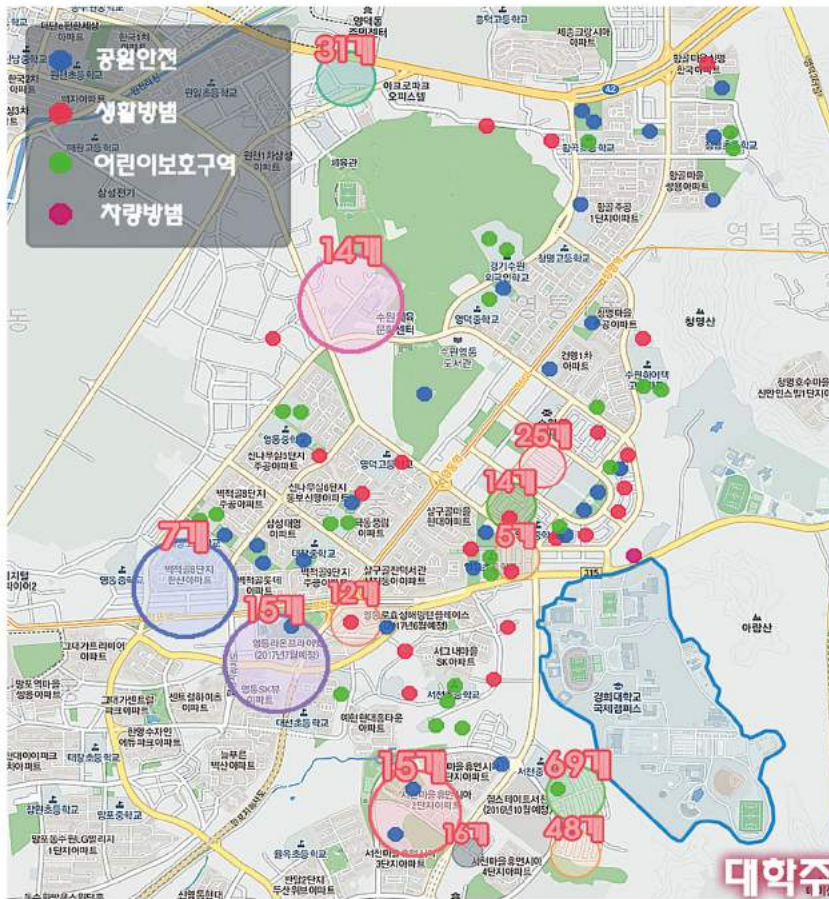
외국어강좌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 **접수기간**
· 정규 외국어강좌(6주) : 2016.03.14(월) ~ 04.22(금) · 접수기간 : 2016.02.22(월) ~ 2016.03.14(월)
- **Level Test**
· 영어회화 : 03.08(화), 03.09(수) 17:30 ·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회화 : 03.08(화) 17:15
- **강의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07:30									
07:45	영어/일본어/중국어/ 스페인어초급2	Ted Talk		Ted Talk		Ted Talk		Ted Talk	
08:30 08:45		영어/일본어/중국어/ 스페인어초급1		영어/일본어/중국어/ 스페인어초급2		영어/일본어/중국어/ 스페인어초급1		베트남어 회화	
17:00	Canian do	Video- debate		Caniano		Video- debate			
18:00									
18:30	스페인어 초급2	독일어 초급1		스페인어 초급1	독일어 초급2	베트남어 초급	academic writing		academic writing
19:20	프랑스어 초급1		영어	프랑스어 중급1		스페인어 초급2	독일어 초급1	베트남어 초급	academic presentati ons
19:30			일본어						
19:50			중국어			프랑스어 중급1			
20:00	스페인어 중급1			스페인어 중급2		스페인어 중급2			
20:50									

범죄... 서울캠 성폭력, 국제캠 폭력 사건 빈번



• CCTV 설치 현황 - O 보안등 설치 현황



국제캠 치안 범죄 발생 지역

치안 범죄를 발생 시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새벽에 일어났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시각은 오전 0시부터 4시로 절도, 폭력, 강도는 0시부터 4시에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됐다. 성폭력 범죄 또한 심야 시간에 가장 위험하지만 타 범죄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하루 종일 미미한 추이를 보이다가 0시부터 4시까지 범죄 기록이 많아지기 시작해 새벽 4시부터 아침 7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오전 7-12시는 통상적으로 범죄가 빈번한 시간대가 아니지만 유독 절도는 활발하게 발생했다. 직장인의 출근 시간대나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혼잡한 틈을 타 절도범죄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의 치안범죄가 가장 미미한 시간이다. 이후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는 전체적으로 범죄 빈도가 높아지다가 심야시간대에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패턴을 보였다. 특이한 점은 국제캠 영통역 부근에서 24시간동안 절도 빈도가 매우 높았고 폭력범죄가 낮 12시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학교 주변에서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만큼 예방책 또한 중요하다. 특히 지역 내 CCTV와 보안등이 범죄 예방과 검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CCTV는 기본 촬영 범위가 100m 내외로 먼 곳까지 촬영이 가능하며 보통 한 곳에 3~4대가 설치돼 있어 무범지역을 다각도로 촬영할 수 있다. 보안등이란 도로 폭 2m이하에 설치된 가로등으로 어두워져 범죄나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지역에 안전

을 위해 설치된다. 치안 범죄가 어두운 심야 시간에 주로 발생하는 만큼 범죄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학교 주변 방범용 CCTV는 회기동 18곳, 서천동 14곳, 영통동 69곳에 설치돼있고, 보안등은 회기동 390개, 서천동 182개, 영통동 158개로 조사됐다. 서울캠 지역은 보안등이 많고 국제캠 지역은 CCTV가 많았다.

방범용 CCTV는 다른 지역에 비해 영통동에 유독 많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타 지역과 달리 공원과 학교가 많기 때문이다. CCTV는 주로 학교와 어린이 보호구역, 공원 등에 설치된다. 영통동 69곳에 설치된 CCTV 중 26곳이 공원안전을 위한 것이었고, 20곳이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돼있다. 나머지 22곳에 설치된 CCTV는 일반 방범 목적으로 대부분 주거지역이나 무범지역에 있었다.

서천동의 설치 현황도 비슷하다. 학교나 어린이집 주변에 설치된 CCTV가 14곳 중 5곳이었으며 어린이 공원 주변으로 4곳, 나머지 5곳은 일반 주거 지역에 설치돼있다.

회기동 또한 청량초등학교와 흥릉초등학교, 회기 어린이집 등 어린이 시설 주변에 많이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공원이거나 학교가 국제캠 지역에 비해 비교적 많지 않아 대부분 원룸단지나 주거지가 밀집한 골목에 설치돼 있었다.

보안등은 CCTV 설치 현황과는 달리, 회기동 보안등의 개수가 영통동과 서천동에 설치된 보안등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보안등은

하나당 약 3lux정도의 밝기를 가지는데 이정도 밝기는 촛불 3개를 1미터 거리에서 바라본 정도로, 골목처럼 어두운 곳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회기동은 상가와 아파트가 발달한 국제캠 주변 지역에 비해 골목과 어두운 지역이 많아서 보안등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회기동에서 하나의 길에 보안등이 가장 많은 지역은 빌라와 원룸 밀집지역인 회기로 12길이었으며, 이곳에만 36개의 보안등이 설치돼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시된 CCTV 이외에 시설 CCTV까지 포함했을 때 사실상 촬영 시각 지대는 많지 않다. 게다가 움직이는 CCTV인 차량 블랙박스까지 포함하면 거의 모든 범죄 행위는 기록에 남는다. 보안등 또한 골목 중심으로 대부분 설치돼 있고 지속적으로 개수를 늘려가며 무범지역을 줄이고 있다.

영인동부서의 지난 5년간 평균 치안범죄 범인 검거율은 75%가 넘는데, 특히 많이 발생하는 폭력범죄는 작년기준 88% 이상의 검거율을 보였다. 범죄가 발생하면 대부분은 검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동대문구 경찰서 측은 “CCTV와 보안등은 범죄 예방이나 검거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무범지역을 CCTV로 촬영하거나 보안등으로 밝힌다면 아무래도 범죄 심리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CCTV설치를 요청하고 있고 고장난 보안등이 있다면 구청에 수시로 수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16학년도 1학기 사회봉사과목 이수 시 유의사항 안내

- **적용대상** 2016~1학기 현재 사회봉사 1, 2, 3을 수강신청한 2004학년도 이후 입학생 (03학번(포함)이전 학생은 별도로 문의바랍니다.)

- **과목명** 사회봉사1, 사회봉사2, 사회봉사3 단계별로 이수해야 함 (ex :사회봉사 2는 사회봉사 1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수강신청 가능)

- **이수구분** 자유선택 (2016학년도부터 자유선택으로 변경)

- **학점체계** 1학점(학기당 1학점, 재학 중 3학점까지 이수 가능)

- **이수절차** 수강신청 → 인정되는 봉사활동 기관 검색 및 선정 → 사회봉사활동 → 학점인정을 위한 제출서류구비(봉사활동 확인서, 학점이수신청서, 결과보고서, 활동사진 및 설문지 작성) → 정해진 기간 내 제출

- **학점인정 요소**

- **봉사인정기관(중요)**

- **교외기관**

- 1365자원봉사4서포털(www.1365.go.kr) [안전행정부 산하],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www.vrms.or.kr) [보건복지부 산하], 서울동행프로젝트 (<http://donghaeng.seoul.kr>) [서울시] 등에 등록되었고, 활동 확인서를 상기 사이트에서 출력해 올 수 있는 기관에 반드시 한함.
- 봉사활동 확인서(인증서는 반드시 상기 사이트에서 출력해 온 것만 인정됨)
※ 봉사활동 시작전 봉사기관에 상기 사이트에서 활동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내기관**

- 사전검토 및 협의의 아래 봉사활동만 인정
※ 국제교육원 한국어도우미, 입학관리처 모교방문단, 지구사회봉사단 봉사프로그램, 학생지원처(경희봉사단, 입학식도우미, 의료봉사, 농촌봉사활동, 자연재해 복구활동, 장애우 생활도우미, 클린캠퍼스, 교내 캠페인), 교수학습지원센터 튜터링 학습프로그램, 경희부속 중·고등학교 방과 후 학습지도, 자연사박물관 자원봉사, 경희의료원내 자원봉사, 후마니타스컬리지 실천교육센터 실천활동단, 후마니타스컬리지 신입생세미나 과목 멘토
[교외기관 활동 중 상기 3개 사이트 등록 기관에 한하여 활동을 인정하는 사유
→ 사회봉사커뮤니티(<http://club.khu.ac.kr/khusge>) FAQ에서 확인]

- **봉사활동인정기간** 2015. 9. 1 ~ 제출일 전까지 활동한 실적

- **서류제출기간** 2016.05.23.(월) ~ 06.03(금) 오후 5시30분 마감

- **학점인정기준 및 유의사항**

1. 인정시간 : 32시간 이상(32시간 이상도 1학점만 인정)
※ 사회봉사 2, 3의 경우 (직전학기)사회봉사 1, 2에서 32시간을 초과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직전학기 초과시간은 당해학기로 인정되지 않음.
(예 :사회봉사 1에서 42시간에 대해 서류를 제출하여 학점을 인정 받았을 경우)F 바로 다음 학기에 사회봉사 2를 신청 하였을 때, 직전학기2의 초과시간(10시간은 당해학기로 이월 되지 않음)
2. 봉사활동은 1일 최대 8시간 까지만 인정
3. 한월중은 1장당 4시간 봉사시간으로 인정됨. 단, 봉사인정기간(직전학기 + 수강 신청한 학기) 동안 최대 2장(총 8시간)까지만 인정 가능함.
※ 봉사활동은 하루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 되므로, 아래 경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 하루에 한월(4시간)과 다른 봉사 7시간을 한 경우, 총 11시간이 되므로, 3시간은 제외하여 계산됩니다.)
4. 재학, 휴학, 복학에 상관없이 2015. 9. 1 이후에 한 봉사활동 부터 인정가능
5. 한국어도우미는 서류제출기간 전 지구사회봉사단에서 국제교육원으로 부터 학점인정 대상자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인 0번 학기에 활동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국제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모교방문단은 재학 중 1회만 학점인정 가능
7. 교내 봉사외의 경우 봉사 확인서는 활동 일자별로 시간을 기입하여(1일 8시간 이내) 소속 부서장의 직인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제출을 원하지 않을 시 복사본을 제출하되 원본대조를 위해 원문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8. 교외봉사는 반드시 인터넷동행프로젝트, VMS, 1365)사이트에서 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이트에서 "상세내역"으로 "전체출력")

- **기타**

1. 본과목은 P / F 과목입니다.
2. 사회봉사 과목은 연간제한 학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2014~1학기부터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여 F를 받았을 시 성적에서 자동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학점평점에는 영향 없음)
※ 이수(4)를 위해서는 재수강을 하여야 합니다.
4. 2004학번 ~ 2010학번 학생이 사회봉사 1을 이수 할 경우 문화세계지도자영역(핵심교양)으로 인정되는 것은 2015학년도 까지만 자세한 사항은 (서울)후마니타스컬리지에 문의바랍니다.

※ 사회봉사 커뮤니티 및 지구사회봉사단 홈페이지에서 FAQ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직전학기 "서류제출안내 및 유의사항"도 꼭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봉사커뮤니티 : <http://club.khu.ac.kr/khusge>
- 지구사회봉사단 홈페이지 : <http://khusge.khu.ac.kr>
※ 기타 문의사항 : 지구사회봉사단(생활과학대 612호)으로 방문 또는 전화 02)961-0673, 2213~4 / e-mail : kehw53@khu.ac.kr(담당: 이한호 교수)

보도

체육대학 학생회, 결산안 공개 약속 ... 트레이닝복 논란은 여전

체대 논란 다시보기

이수형 기자 dltbd112@khu.ac.kr

‘체육대학(체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오티)비 38만원’ 논란은 ‘태권도 공연자 열정페이 논란’, ‘윤요한(스포츠지도학 2011) 전 집행위원장의 학생여론 폄하 발언’ 등 여러 논란을 양산하며 신입생과 외부언론을 포함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논란이 시작된 학생커뮤니티의 특성 상, 익명으로 제기된 여러 주장들이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여론을 이끌어 왔기에 우리 신문에서 그 진위여부를 짚어 봤다.

지난 15일 체대 학생회가 ‘오티비 38만원’ 논란에 대응해, 실제 오티 참가비가 12만 원임을 밝히며 오티 관련 예산안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체대 학생회 측은 예산안 공개와 함께 “몇몇 언론의 추측성 보도 때문에 오해가 불거졌다”며 “학생들에게 인신공격이나 인격을 저해하는 말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실제 집행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예산안 공개는 무의미하다는 지적과 함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포함한 결산안을 제시하라는 요구가 학생커뮤니티 상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체대 학생회 측은 해당 자료를 오는 3월 초 일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산안 공개 후 가속된 논란에 사실상 행정실로 책임 미뤄

또한 공개된 예산안의 일부 내용이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상태다. 예산안의 숙박비와 침구류대여비가 따로 계산돼 있어 의혹을 키웠는데, 이는 숙소인 제2기숙사가 침구류를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실제 제2기숙사가 받아온 숙박비, 식대가 각 10,000원, 4,000원 인데 반해 예산안에는 각 12,000원, 5,000원으로 더 비싸게 책정된 것에 대해 체육대학 학생회 신영광(체육학과 2010) 회장은 “제2기숙사 관련 금액 책정은 체대 행정실에서 맡아 왔다”며 “스텝들 숙박비 등 부대비용이 추가된 금액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어 수건, 우산, 수첩으로 구성된 기념품 구매비용(14,850원)이 타 단과대학보다 비교적 높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 “실용적인 기념품을 고민하다가 행정실의 권유로 해



지난 20일부터 4일간 진행된 체대 오티 사진

당 기념품을 구매했다”며 “학생들을 챙겨주려는 마음으로 봐 달라”고 답했다.

오티 참석자가 1인당 22,000원, 총 660만 원을 부담해 관련한 ‘나는 독도다’ 공연의 공연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여론 또한 집중됐다. 이에 대해 ‘나는 독도다’ 윤정욱 감독은 “공연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 1,000만 원 이상”이라며 “오히려 교내 공연에서 발생한 적자를 외부 공연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남은 수익금으로 전년도 공연자부터 순차적으로 장학지원해오고 있다”는 말과 함께 “천 원 단위 거래까지 모두 증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태권도학과 구철회 조교의 말에 따르면 윤정욱 감독의 외부공연 수익금 기부는 2012년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이번 학기에도 해당 기부금에서 2,0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이 출자돼 작년도 공연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윤 감독은 일각에서 제기된 공연팀 강제동원 논란에 대해서는 “공연을 감독한 입장에서 이 같은 논란에 크게 속상하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공연팀의 임유정(태권도학 2013) 회계 또한 지난 23일 공연에 쓰인 비용의 영수증을 공개하며 “많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16시간 ·

#경희숲_12565
체육학과 16학번 오티에대해 제대로 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체육대학오티는 학교에서 3박4일 이루어지며 오티비 참가비용은 일반학생 380000원으로 숙박비 94000원 행사비 20000원 간식비6000원 단체복 150000원 학생회비110000원 입니다.
이후 오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불참자라도 입금하라고 했는데, 어티참가비를 제외하고 납부하는거라 하더라도 오티진행은 납부한 오티비로 진행되어야하는것 아닙니까?
학생회비는 개중비와 오티비로 쓰인다고하는데 이전의 사례가있다면 설명해주세요. 다른과도 이렇게 쓰입니까? 제가 학생회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것일수도있으니 충분한 설명을해주세요. 영수증을 첨부해주세요

체대 관련 문제가 처음 제기된 페이스북 게시물

은 오해와 논란에 태권도공연팀 재학생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며 “논란을 부른 ‘익명의 내부고발자’는 공연팀이 아니며, 해당 게시물을 사이버 범죄수사대에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반면 트레이닝복 관련 의혹들은 계속될 전망이다. 신 회장은 “오티 이전에 트레이닝복 구매처와 23일 현금거래를 약속했

지만, 체대 오티 논란 이후 거래내역을 남길 것을 요구했다”며 “이에 해당 구매처가 거래를 취소하고 물건을 환수해간 상태”라고 밝혔다. 오티는 단체복 없이 진행됐다. 신 회장은 “상호 개인자격 계약이 없기 때문에, 업체명을 몰라 소송도 곤란한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지만, 약 3,400만 원에 이르는 트레이닝복을 현금

거래하려 한 것과, 회장 본인이 모델명도 모르는 트레이닝복 구매를 위해 12만원씩 모집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현재 체대 측은 트레이닝복 구매취소 이후, 단체복 구매명목으로 모인 금액의 운용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

이번 체대 오티의 경우, 집행 이후 남아 있는 오티비 잔액을 학생들에게 되돌려줄 예정이다. 그러나 사암별 회비 잔여금 운용 결정의 근거가 돼야할 체육대학 학생회칙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오티 또한 같은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예·결산안의 자체심의 규정이 없으므로 예산 모집·집행의 정당성이 부족하다. 개인이 체대 학생회가 제시한 예산안에 이의를 제기할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 ‘SNS 상의 여론모집’인 현실은 모두 회칙의 부재에서 비롯됐다. 게다가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칙 상 단과대학 내 자체심의와 외부심의를 모두 통과한 각 단과대의 예·결산안은 확대운영위원회에 보고되는데, 국제캠퍼스 총학생회가 확대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게시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회칙 없는 체대 학생회

예산안 책정 감시 수단 없어

한편 오티참여를 강제하는 장학기준 또한 도마에 올랐다. 체대 우수장학생 평가 기준에는 ‘행사 참여도’가 공식적으로 포함돼 있다. 행사 참여도란 신입생 오티, 단체응원 등 대학 및 학과 행사에 성실히 참여한 정도를 말한다. 이러한 장학제도가 개인의 행사 참여 비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데다, ‘참여도’라는 계량화 불가능한 평가기준의 사용은 불공정한 장학금 집행을 초래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신 회장은 “반영비율은 모르겠지만 세간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적보다 행사점수가 우선시 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의 신뢰도와 별개로, 행사점수 제도가 일부 학생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는 여론이 주를 이루는 추세다.

체대 오티 논란 초기, 체육대학 학생회 윤요한 전 집행위원장이 SNS상에서 체대 학생회를 향한 비난여론에 대해 온라인상에 부적절한 언행을 남겨 논란을 키웠다. 현재 윤 전 집행위원장은 논란 직후 제출했던 휴학이 승인된 상태며, 학생회 직위 또한 해임처리 됐다.

오늘의 선택
내일의 리더
대한민국 ROTC

미래를 향한 젊은 도전!
ROTC!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는
대학 재학생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해방의 심판관으로서의 군사지식을 갖추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합니다.

★ **학군사관(ROTC) 57·58기모집안내**
2016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 **지원자격**
• 연령: 임관일 기준(만20~27세 이하인 남·여) ※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학군 제57기(남·여 모두가능): 4년제 대학 2학년재학생(5년제 학과는 3년 재학생)
• 학군 제58기(남자만 해당):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는 2학년 재학생)

◆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 기간: 2016년 3월1일~3월 31일
• 방법: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 [지원 접수]란 이용
• 일정: 1차 필기고사: 4월 2일(토) / 발표: 4월 22일(금)
2차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체검사 : 4월 25일(월)~5월 20일(금) / 발표: 6월10일(금)
• 신원조회: 6월13일(월)~8월 12일(금)
• 최종합격: 8월18일(목)
• 문의처: 학군교 (043)830-6031

육군학생군사학교
www.armyofficer.mil.kr

큰 배움터 ‘대학’, 인생의 서재

전문가칼럼-지식의 전달

이택광 교수

외국어대학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얼마 전에 타개한 이탈리아 철학자 이자 작가인 움베르토 에코는 세계적인 장서가로 유명하다. 그의 서재를 보여주는 동영상도 유튜브에 소개되어서 관심을 끌기도 했다. 카메라가 미로처럼 첩첩으로 배열되어 있는 서가를 따라 들어가는 장면은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엄청난 책을 소유하고 있는 장본인이기도 했지만, 정작 에코는 책 자체나 지식에 대한 물신주의를 항상 경계하는 학자이기도 했다.

웬만큼 책을 소장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자신의 서재를 방문한 이들로부터 꼭 받는 질문이 있다. 바로 이 많은 책들을 다 읽었는지 열에 아홉은 물어보는 것이다. 에코 역시 마찬가지였다.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도 어디선가 비슷한 말을 했는데, 집에 찾아오는 방문객들 중에 서가에 있는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묻는 이들에게 항상 “책은 전부 읽으라고 소장하는 것이 아니다”는 대답을 한다고 했다.

지식은 도로에 불과 오히려 기호가 중요하다

같은 질문에 대한 에코의 대답은 “읽지 않은 책을 소장하는 것이 서재”라는 것이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보다 적절한 대답은 없는 것 같다. 어떤 책에 나오는 내용을 다 알고 있다면 굳이 서재에 소장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읽었지만 소장하고 싶은 책이란 대체로 그 내용을 두고 두고 꺼내보고 싶은 경우일 테다. 이 경우는 그 책의 내용이 심오하거나 귀감 삼을 만해서 다시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그 책의 내용을 환하게 알 수 있다면 굳이 소장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에코의 대답은 농담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에코라는 학자가 생전에 추구



한 삶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절묘한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에코는 지식을 통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지식은 언어체계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체계가 다르면 전혀 다른 내용을 전달한다. 그래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지식이라기보다 기호(sign)였던 것이다. 그에게 지식은 도구적인 것에 불과했다. 에코가 자신의 전문지식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소설을 선택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에코에게 소설은 그냥 취미생활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유력한 소통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논문이 아니라 소설을 쓰는 기호학자. 이른바 학문에 대한 규범적인 생각을 가진 이들이라면 눈살을 찌푸릴 만한 일이지만, 에코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보다도 더 확실한 지적 작업은 없었을 것이리라.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은 이렇게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제도와 체계에 도전한다. 물론 에코의 실험을 두고 성공인지

아닌지 가능해볼 수는 있겠다. 그러나 그 시도 자체가 가진 의미는 퇴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에코의 평생을 돌아보면서 반성해볼 만한 것들이 있다. 우리는 종종 지식의 습득을 삶의 전부인양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에코의 생각은 이런 문제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서재에 있는 책을 모두 읽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책의 존재와 위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말하자면, 어떤 지식도 개인이 완전하게 소유할 수 없다는 지적은 새삼스럽게 우리에게 ‘공부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공부의 의미 필요

내용을 암기하고, 그 암기의 정도로 점수를 매겨서 줄 세우기를 시키는 우리의 근대교육은 이런 문제에 대한 생각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근대교육의 경직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부

의 의미’가 절실한 시점이다. 제대로 된 ‘공부의 의미’를 세우기 위한 근대교육의 제도를 재편하는 것도 그래서 시급하게 필요하다. 오랜 역사를 가진 외국의 대학들이 앞 다투어서 새로운 교육방식을 도입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그 동안 온갖 미사여구로 치장한 혁신안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혁신안들은 궁극적으로 ‘취업’이라는 먹고사니즘을 겨냥한 것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먹고사니즘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에코의 서재처럼 대학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답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는 답은 대학 밖에도 차고 넘치지 않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을 궁구하는 장소가 바로 ‘큰 배움터’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대학을 인생의 서재로 삼아서 알지 못하는 답을 구하려는 노력들을 우리 대학에서 점점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참여마당

고아라

(국어국문학 2015)



밤하늘이 매력적인 이유

별은 참 오묘하다. 황석영 작가의 <개밥바라기 별>의 소재가 된 금성은 새벽에 뜨면 샛별, 초저녁에 뜨면 ‘개밥바라기 별’이라 불린다. 시간에 따라 금성이 다른 이름을 갖는 것처럼, 별은 어떤 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어떤 이에게 별빛은 그리운 어머니의 눈빛으로, 또 다른 이에게 별빛은 무거운 현실의 위로로 다가온다. 그리고 나에게 별빛은, 따스하게 내 곁을 지켜준 오랜 친구와 닮았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 손을 잡고 천문과학관을 찾았던 적이 있다. 밤이 깊어지자 선생님께서는 밖에 나가 별자리를 직접 찾아보라고 하셨다. 우리는 밖으로 뛰쳐나가 별자리를 찾았다. 황홀한 밤하늘 가운데 나란히 줄지어 있는 별 세 개를 발견했다. 내가 지금까지도 자신 있게 찾을 수 있는 별자리, 오리온자리의 허리띠 부분이었다. 아무렇게나 흠뻑려져 있는 줄로만 알았던 별들 중에 처음으로 별자리를 찾았던 그 어린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창문 밖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비록 지금은 내가 다른 이들에 비해 미미하지만 꾸준히 내 빛을 내면 언젠간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다.

어느덧 나는 중학생이 되었다. 당시 나는 소심한 성격 탓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꺼려했다.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있던 것도 아니었다. 나는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가끔 어떤 사람들은 내 소극적인 모습을 질책하곤 했다. 가슴이 답답해질 때마다 나는 습관처럼 집 옥상에 올라갔다.

옥상 위에 담요 하나 깔고 가만히 누워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밝은 별들이 가장 먼저 눈을 맞춰왔다. 하지만 나는 밤하늘과 더 끈질기게 눈을 맞췄다. 그러면 내 끈질긴 시선에 지쳐 살짝 고개를 내미는 아기별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아기별을 찾다보면 과학시간에 배웠던 몇백 광년이라는 거리는 이미 없어진지 오래였다. 기세등등한 저 별들 가운데서 콧웃게 자기 빛을 내는 아기별을 보며 나는 다시금 위로를 받았다. ‘결코 아기별들은 빛이 없는 게 아니다. 단지 밝은 별들 사이에 묻혀 잘 보이지 않을 뿐이다. 비록 지금은 내가 다른 이들에 비해 미미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내 빛을 내면 된다. 아기별을 끈질기게 찾아내는 나처럼, 언젠가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밤하늘처럼 세상에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하지만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 부유한 삶, 안정적인 직업 등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의 모습은 제한적이다. 모두 제각기 다른 모양새를 갖고 있고, 그 가치가 모두 다름에도 말이다. 내가 밤하늘을 사랑한 이유는 슬쩍 봐도 보이는 화려한 별들이 아닌, 오랫동안 애를 써야 비로소 보이는 아기별들 때문이었다.

별들이 모두다 똑같이 반짝거렸다면, 나는 아마 밤하늘에 어떠한 매력도 느낄 수 없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밝은 별을 따라 무리하게 빛을 내는 것이 아닌 자신의 빛을 꾸준히 낼 때, 또 모두가 그 사람 그 자체를 따스한 눈길로 바라봐줄 때, 세상도 밤하늘처럼 매력적으로 빛나지 않을까.

▶1면에서 이어짐

라이너 마리아 릴케에게 대도시는 ‘죽음으로 이르는 길’이었다면, 데이비드 하비에게 대도시의 길은 도시의 심장으로 이르는 詩였다. 대도시가 사람들을 둔감한 군중으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도시인들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준다고도 한다. 대도시의 삶이 감정 또한 화폐처럼 계산하도록 만든다면,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이해관계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화폐를 매개로 모든 것을 등가치로 교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도시의 물화된 삶은 군중 속의 고독을 안겨준다.

다른 한편으로 대도시의 익명성은 자유로움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과도한 친밀성이 사생활을 침해하고 변화에 둔감해서 보수적인 시골에 비해 대도시는 자유롭고 진보적인 태도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가 비대해지고 인구가 밀집되면, 우리의 감성구조 또한 변하게 된다. 게오르그 짐멜은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의 전형적인 심리상태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서, 어떤 생활양식과 어떤 미적 가치를 품고, 어떻게 살고 싶은가라는 문제와 대도시의 형 성과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를 신경과민으로 분석한다. 스트레스가 항시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과도한 각성의 상태가 신경과민이다. 그것은 내, 외부적인 자극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혹은 끊임없이 변하는 데서 말미암은 충격의 효과다. 대도시의 현란한 변화속도로 인해 인체의 생리적, 인지적, 행동도 변화한다. 감각들이 빠르게 변하는 세계의 속도를 따라잡으려고 신경각성 기어를 고속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이다.

짐멜은 이런 신경과민과 동전의 양면인 둔감함을 동시에 포착한다. 과도한 신경과민으로 오히려 사람들은 지극히 둔감해진다. 대도시에서의 삶은 복잡하고 피로하고 경쟁적이다.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무심해진다. 아파트 옆 집 독거노인이 죽은 지 한 달이 지나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서울역 노숙인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는다.

눈길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해진다. 미친 듯이 경쟁하는 대도시의 삶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이제 옆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

하지만 데이비드 하비가 말하듯,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서, 어떤 생활양식과 어떤 미적 가치를 품고, 어떻게 살고 싶은가라는 문제와 대도시의 형성과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대도시를 정치적인 아고라로 만들어나갈 것인지 아니면 공간적 불평등이 가시화되는 ‘슬럼행성’으로 만들어버릴지는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집단적 노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교수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안내

교수지원 프로그램

- 경희 OCW(Open CourseWare) 모집 안내
 - 신청자격 : 본교 전임교원
 - 지원대상 : 2016학년도 1학기 학부 개설 강좌(국제캠퍼스)
 - 신청기한 : 2016년 3월 7일(금)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전자우편(online@khu.ac.kr)으로 신청
 - 신청서 다운로드 : http://ctl.khu.ac.kr 공지사항

학생지원 프로그램

- 스터디그룹
 - 신청자격 : 국제캠퍼스 재학중인 학부생
 - 팀 구성 : 5인 이상의 학부생으로 구성
 - 전공기반형
- 자유선택형 : 전공, 학년 상관없이 관심 분야 주제 선정
- 신청일시 : 2016년 3월 8일(화) 11:00 ~ 15:00 ※ 단 하루 4시간만 진행됩니다!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전자우편(learning@khu.ac.kr)으로 신청
- 신청서 다운로드 : http://ctl.khu.ac.kr 공지사항

Learning Fellow

- 신청자격 : 평점 3.50이상을 받은 3~4학년 재학생
- 신청기한 : 2016년 3월 11일(금)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성적 증명서와 함께 교수학습지원센터(학생회관111호) 방문 제출
- 신청서 다운로드 : http://ctl.khu.ac.kr 공지사항

■ Learning Step-up

- 신청자격

유형	튜터	튜티
기초 학습	기초 학습능력(미분적분학, 공학수학 등)과 관련 교과목에서 A- 이상을 받은 학부생 또는 관련 전공 대학원생	2016-1학기 기초 학습능력(미분적분학, 공학수학 등)과 관련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
전공 학습	튜터와 동일 전공 학생으로 평균평점 3.5 이상을 받은 학부생 또는 관련 전공 대학원생	직전 학기 평균평점 2.0 이하를 받은 학부생

- 팀 구성 방식

유형	학습 주제	팀 구성 방식
기초	기초 학습 관련 교과목 내용	튜티는 동일 교과목 수강생으로 구성
전공	전공 학습과 관련 내용	튜티 - 튜터 모두 동일 전공 학생으로 구성

- 신청기한 : 2016년 3월 11일(금)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전자우편(learning@khu.ac.kr)으로 신청
- 신청서 다운로드 : http://ctl.khu.ac.kr 공지사항

국제캠퍼스 교수학습지원센터

문화

동아리 → 농촌계몽 → ‘취업’ 학원行 → 해외연수 → 지금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① 20년대 우리신문에 실린 각종 외국어학원 광고. 70~80년대에도 영어학원의 인기가 대단했다
③ 80년대 학내에서 컴퓨터 특강을 듣고 있는 학생들 모습 ④ 방학 중 학교에서 동아리활동을 하는 학생들

이불도 속옷이다!

매일 샤워하고...
매일 속옷은 갈아입으면서...
이불은 왜?

이불의 пам과 각질은 진드기의 좋은 먹이가 되어 자주 빨아줘야 합니다.
매일 갈아입는 속옷처럼~

크린토피아 3단계 이불케어 서비스

전도 판에 열풍건조하기

전도 판에 두드리기

전도 판에 빨아들이기

대학생의 방학 변천사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대학생에게 방학은 어떤 시간일까? 주변에서는 여행을 추천하지만 막상 떠나기엔 비용이 부담된다. 그렇다고 아르바이트를 하려니 그 시간에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게 취업에 유리할 것 같다. 취업을 생각하자면 학기 중 시간이 없어 못했던 대외활동도 하고 싶어진다. 아차! 내 학점. 다음 학기에도 'B0'의 폭격을 당하지 않으려면 전공 공부도 미리 해둬야 하는데... 이렇게 이것저것 고민하다보면 결국 어느 것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오늘처럼 개강을 맞이한다. 어마어마한 자유가 주어지지만 '의식의 흐름'대로 보내기엔 부담스러운 약 두 달여의 시간들. 그래서 우리신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대학생이 '방학 기간'을 어떻게 보내왔는지 옛 신문자료들을 통해 살펴보고 대학생에게 있어 방학이 어떤 의미였고 또 어떤 의미인지 알아봤다.

1960년대 대학생의 방학은 '대학생'하면 떠오르는 고전적인 이미지에 부합하는, 꽤나 낭만적인 모습이었다. 이 시기의 대학생은 학업만 계속 이어가기보다는 문자 그대로 '학문을 놓고' 자유로운 생활을 했다.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보고 여행을 하거나 농번기에는 고향의 농사일 도와주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활발했던 것은 방학 중 동아리 활동이었다. 1967년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방학 중 한창 클럽활동이 인기지만 그 중에서도 산악부, 등산부, 계몽반이 으뜸'이었다고 한다(1967.12.11.).

60년대 방학은 여가활동 위주
70년대 방학은 농촌계몽활동 활발
80년대 방학은 취업 사교육 인기

60년대의 대학생이 방학에 활발한 여가활동을 수행하며 휴식시간을 보냈다면, 산업화가 진행되기 시작했던 70년대부터는 농촌계몽활동이 방학을 맞은 대학생의 주요 활동이 됐다. 특히 1969년부터 문교부의 대학생 봉사활동에 대한 후원이 시작되면서 이 농촌계몽활동은 전국적인 규모로 전개되었다. 1972년 경향신문이 당시 대학생 방학 봉사활동 내용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새마을 운동의 현장에 찾아가 일손을 돕거나 글을 알려주는 등의 활동을 주로 했다고 한다.

한편 이 시기에는 외국어 공부도 인기를 끌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의 외국어 공부와는 목적이 사뭇 달랐다. 1972년 발행된 우리신문에 실린 당시 법학과 2학년 박선웅 동문의 인터뷰 중 일부를 보자.

“국내에 결핍돼있는 학술서들을 해외서적으로 읽지 않으면 전공하는 학문의 영역에 도달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보면 외국어실력은 항상 강조되고 있는 학생의 무기이다. 방학은 그것을 연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취업을 위한 학원의 인기가 치솟았는데, 방학이면 학원에 비해 수강료가 저렴한 학내 방학 특강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었다. 1984년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각 대학별 컴퓨터 특강에 수강신청을 한 학생이 방학 전에 비해 30% 늘었다. 1984년 당시 우리학교 전자과 3학년이었던 박정순 동문은 “컴퓨터 사설학원은 한 달에 20,000원정도 했었는데 방학 때 학교에서 특강으로 들으면 9,000원정도 했었다. 거의 두 배 이상 수강료 차이가 나니 학생들이 방학만 목 빠지게 기다려서 특강을 들곤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컴퓨터 자격증 외에도 외국어 능력이 취업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되었고, 1989년에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이후에는 해외연수 붐이 일기도 했다. 1991년에 동아

리서치가 서울지역 대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41.9%의 대학생이 방학 중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해 당시의 ‘해외연수 붐’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이후 불어 닥친 경제위기 한파로 해외연수는 대학생의 방학에서 점차 사라져갔다. 대신 학비를 마련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중요한 방학 중 활동으로 떠올랐다. 방학에 아르바이트를 종종 했었다는 김정수(경영 1999) 동문은 당시 상황에 대해 “방학에는 하루 10시간씩 여른조사하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다. 여학생들은 주차단속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때도 여학생연수가 필수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부모님께 등록금 외의 부담을 더 드리는 게 (마음에)걸려 돈을 벌자는 분위기였다”고 회상했다.

당장 해야할 일에 밀린
가장 하고 싶은 일
여행, 독서보다 취업준비가 우선

경제위기 시대의 대학생들이 가계 부담을 느끼며 방학을 당장의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았다면, 2000년대에 들어서고 경제가 점차 회복세에 들어서면서 대학생들은 다시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즉 취업 대비에 신경을 쏟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부터는 점차 취업에 여학실력과 컴퓨터 자격증 외에도 다양한 스펙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겼다. 때문에 방학에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하려는 대학생들이 많아졌다. 한국경제는 2002년 발행된 신문을 통해 겨울방학 중 모 외국계 회사의 방학인턴사원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는 김소영 씨의 사례를 통해 ‘대학가 방학풍속도는 취업준비 현장실습기간’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런 ‘방학풍속도’는 2016년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대학생들은 좁은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해 각종 자격증을 필수로 취득하고 실무능력을 갖추기 위해 대외활동과 인턴을 필두로 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신문이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우리학교 재학생 17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가 방학 중 자격증 공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반면 방학 중 여행을 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8%에 그쳤다. 대학생의 상징이던 ‘배낭여행’이 취업부담에 의해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잡코리아가 최근 4년제 대학생 1,013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계획’에 대해 물어본 결과, ‘해외 배낭여행’이 가장 해보고 싶은 일 중 1위로 뽑혔지만 당장 해야 할 일로는 ‘취업준비’가 1위로 뽑힌 바 있다.

여전히 ‘학문탐구’
취업준비에 밀려
방중 전공서적 독서 비율 13%

대학생의 본분이라 일컬어지는 ‘학문탐구’도 취업준비에 밀리는 양상이다. ‘방학 중 책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56%였다. 특히 방학 중 책을 1권 이상 읽은 응답자 중 전공서적을 읽었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이렇듯 최근 대학생 방학은 대부분이 취업을 위한 시간으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전적으로 대학생 개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시류에 따라 주체성을 잃고 취업만을 위해 방학을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방학 때 만큼이라도 잠시 쉬며 진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떠올리며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